

外國에서 온 便紙

많은 우리 회원들이 해를 거듭 할 수록 해외 진출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허영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너무나 적은 보수때문에 기인한지도 모른다.
여기 미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온 회원들의 편지를 소개하겠다.

미국편

존경하는 김선생님께

그 동안도 주님의 은혜중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곳에 온지 벌써 한 달이 넘었으나 생활에는 여전히 익숙지 못하옵고 서툰 것 뿐입니다. 저는 그 동안 하느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괴로운일 없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4月 10일에 Pasadena 대학의 기숙사로 옮겨 영어준비를 위해서 청강생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식공부는 8월에 시작되므로 교수들의 수업방식과 언어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이 대학도 매일아침 40분간 chapel이 있사오며 일 주일 간격으로 음악회가 열려 학생들의 정서 방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seminar, conference, meeting을 갖고 여러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돋구어 줍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schedule이 짜여있고 1-4까지는 거의 class가 없으므로 학생들이 campus내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시간에는 남자학생들은 무거운 그릇을 날이고 그릇을 씻고 여학생들은 serving 하는 간단한 일들을 하고있고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대한 태도는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학생을 도와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사는 우리나라 일류호텔에서도 볼수없는 좋은 것이 serve되므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여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곤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기숙사로 weekends 가 되면 가정집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용돈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3시간 정도하면 한화로 900원 정도 벌게 되고 어린이들도 어릴때부터 따로 기르는데 습관이 되어 있으므로 baby sitting 이라기 보다는 watching 만 하면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아직 저의 공부기 시작되지 아니 했으므로 주위에 있는 community hospital 에서 weekends 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편리하므로 노동력의 소모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재미있는 경험도 얻게 되어 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California 간호협회 등록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얼마안있으면 등록도 마쳐질 것 같습니다. 길양 한테서 한국간호협회 등록 건에 대해서 편지가 왔는데 외국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학을 마칠때까지는 직업적간호원으로 보다는 학업에 도움을 위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사오니 이턴경우 한국에 꼭 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선생님 몇 주일전 이금전선생님 만나 재미있는 시간보냈습니다. 사위되는 사람이 택시를 들고 이곳까지 데리러와서 로스앤젤러스에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만가운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심장병으로 집에서 rest 하고 제집니다. 선생님의 안부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숙사사감 선생님과 여학생들을 위해서 밤 중에는 이 학교에서 가장 힘센 남학생이 호위병으로 일하므로 모든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도 이런 제도는 아니라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매월 첫날이면 남학생들 전부가 chorus 를 형성하여 학생기숙사 앞에서 찬송가 등 명곡을 밤 12시에 부르면 여학생들은 꽃을 준비하였다가 불빛 아래로 뿌려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 대학에서 유명한 과목은 교육학, 신학이므로 미국 각 주에서 이 곳으로 옮겨오며 대개 이 곳에서 신학을 마치면 해외선교사로 파견됩니다.

한국의 하늘이 가장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기온은 항상 봄이고 꽃이 아름답지만 안개가 거의 매일 아침 끼므로 시력장애를 일으켜 안경 낀 사람이 많고 저도 맨 처음에는 눈이 아파 고생한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더욱 훌륭한 간호사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던 그래도 선생님께 배움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아올고 선생님의 평안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제집시오.

1966. 5. 17. 최경숙 올림

카나다 편

벗들께

우선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내가 보고 느낀점을 알려드리며 저 개인의 사상에 비쳐진 주관과 객관이 뒤섞인 글이어서 이 글이 옳고 전부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북미라해서 크기는 미국보다 크다고 보겠으나 나라에 거의 반 이상이 춥고 여름지대여서 소수의 에스키모인이나 남부에서 백인들로 인해 밀려나간 인디안 외에는 캐나다 국민 거의 전부가 반이하 남부 몇몇 province에 살며 전 국민수가 조국의 남한 전국민수보다 적다면 놀라시지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미국과 거의 같은 나라”라고 제자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구라파적인 점이 많고 1967년으로 백년의 물을 맞는 신진국으로 많은 계획과 꿈으로 약 5년전부터 갑자기 늘리는 이민수로 국민수를 늘리고 이곳 저곳에서 설새없이 세워 올리는 고층건물이며 East Europe 각국에서 오는 이민, 특히 이태리에서는 집단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어 새로 건설중인 작업에 노동인들로 많이 일하고 있고 동양인으로는 홍콩, 제 2세 중국인들, 필리핀, 일본, 한국의 순서로 이민의 큰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부제통은 영국제통이 주며 (Canadian English) 케백 (Quebec

province)에는 제 2세 불란서인들로 아직도 자기나라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정부에 불어를 내세우기 위한 반박과 학생들의 demonstration 등 많은 갈등을 빚어대곤 합니다.

정부이민 문제의 토론을 T.V.를 동해보면 이민법에 특별히 인종의 차별이 없다하나 결과적으로 다수 이민으로 오는 주로 지식이 낮은 구라파 이민들에 비해 동양인에게는 선택적으로 기술인이나 지식층을 소수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것은 동양인으로 일찍이 곳에 와서 완전한 경제기반을 갖추고 앞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동지들에게 경제 보증인이 될 만한 여유의 위치에 놓여있는 수가 드문 이유라고 할까요. 주로 정착적인 동양인에 비해 구라파, 날미, 캐나다를 주로 보면 한 곳에 오래 조용히 머물기보다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사이를 드나들고 일종의 여행기분과 모험을 즐기는 것 같으며 이렇게 드나들고 움직이는 틈에서 저 자신도 들떠있는 이국인으로 또 다른 이국인들과 살게 됩니다.

이 곳의 흥미있는 점은 중립국이 아닌 자유국가이면서도 어느면으로는 중립국 입장으로 세계 구석구석의 문화까지도 자유로히 받아들여 각국에서 모여든 이민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소위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예로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 대부분이나 못지않게 러시아로부터 구라파 각국 동양의 film 을 가끔 놀리고 잦은 각국의 문화제전시 등으로 각 나라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라디오에서 약 10분간 서울의 안내로 남산의 케이블 카로부터 동대문시장까지 자세한 소개를 함에 놀라운 한편 향수에 젖은 일이었으며 엇그제 Sunday newspaper 가정란엔 봄김치 담그는 법이 제가 아는 이상으로 자세히 실려 놀랍고 웃은일이 있습니다.

Toronto에서만도 Italian section, Chinese section 을 비롯해서 각 나라가 저마다 group 을 지어 풍여 살며 이들의 2세들은 쉽게 유창한 영어로 사회에 융합이되고 완전한 Canadian 시민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동양인의 2세는 역시 뚜렷이 나타나는 외모로 "이국인"이라는 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한국인들은 서로 교류가 있어 향수를 나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으로 학교생활 직업인으로 직장생활이 외에 캐나다 사회에 원만한 융합이 되어있다 하기는 어려우며, 경제로 곤란을 받는 조국에 있는 친족을 돕고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 살려나 하는 희망으로 현재의 외로움을 참고 있다고 할 까요.

저의 이곳 생활중의 하나는 일요일이나, day off 때 가끔 옛날 한국에 선교사들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

하여 노년을 지내는 이 근방 선교사분들과 만나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가보고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으나 비단 교인들뿐만 아니겠으나 한국에 대해 거의 무지의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 주식에 빠져, 빵, 치즈 등을 먹느냐고 물어 이것이 우리 주식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마치 빵, 패터를 먹지 않는 인간이 어디있느냐는 식이지요. 하도 답답해서 그럼 너희들 주식에 간장, 김치를 먹느냐고 했더니 그 것이 무엇이냐고 물기에 거 보라고 똑같은 경우로 생활풍습이 다른 이유로 음식을 다른식으로 제조해 먹는것 뿐이라고 서로 웃고 만 일이 있었으며 이렇게 계속하는 어두운 들음 몇가지 외에 더 이상 흥미로 알려드는 사람역시 드물다고 보겠어요. 이러한 이들에게서 한뎀도 모야 한국의 몇몇 가난한 동지들을 돕는다고 저에게 크게 자랑하는 이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것 보다 쉽다는 말이 지금 생각나며 자존심을 꺾어가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놓여있는 형제들의 마음이야 오죽 쓰라리겠습니까만은 이를 극복하기에는 오히려 한국인의 높은 긍지와 인간의 위엄을 잊어서는 아니되리라 믿어요.

저 개인의 일로는 지금 소아과병원에서 일하는중 무척 감동된 것은 어찌던 그렇게 알뜰히 어린이들을 다루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어린

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도 중요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바뀔에서 오는 낯설음, 병원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받던 부모로부터 잠시 병으로 인해 떨어져야 한다는 큰 타격을 덜어주기 위한 최대의 노력에서 오는 철저한 정신간호가 더 중요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말해서 간호의 첫 목적이 사랑하는 아이를 낯선 병원에 맡기어야한다는 엄마의 불안과 아기와 엄마와의 이별에서 오는 공포를 어떻게하면 덜어줄수 있느냐에 대해 주목적이 있으며, 예로 입원시 엄마로부터 입원아이 특징, 좋아하는것, 싫어하는것, 별명, 좋아하는 음식, 음료수, 인형 등을 알아 되도록 집에서와 별다른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심지어는 잘때 덮고 자는 좋아하는 담노가 있으면 집에서 까지 가져다 덮어주는 소위 child 하나하나를 완전한 개인으로 개성을 살려주는 알뜰한 간호라고 할까요. holiday 에 소아들에게 특별한 offer 들로 remind 시켜주며 x-mas 멘 조그마한 선물, 각방 창문에 신타크로스를 주로 재미나는 그림들을 그려 주고 카드를 주고 받는 것을 보면 간호원들도 아이들과 똑같은 기분으로 딱딱한 병원이라기보다 간호원과 아이들이 동심일체가 되어 부드러운 family life 의 연장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고 볼 수있읍니다.

치료시에도 의사, 간호원들도 결코

의료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친구로 쉬운말로 치료의 순서나 이유 등을 시작전 설명해주고 상대방의 help를 청하는식, child와 호흡을 같이 하도록 힘쓰는편입니다. 간단한 주사를 놓을 때에도 아프지 않다고 꼭 찔러주기 보다 스폰지로 닦으며 조금 따끔할 것이니 용감히 맞아 볼까? 하는 식이지요.

가장 simple 하고 sensitive 한 소아들에 대한 의사, 간호원, 소아간의 주고 받는 회화를 들으면 순진하고 단조롭고 또한 humerous한 점입니다. 소아들이 서슴치 않고 자기 병에 대해 묻고 두려움 걱정을 솔직히 이야기 하도록 용기를 주고, 소아가 울때 울음을 억제시키거나 벌주기 보다 잠시 여유를두고 왜 우느냐는 식으로 회화를 이끌어 그 문제점을 알아내도록 하는 식이 간호의 무엇보다 중요 목적이라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설이나 경제사정으로 충분한 recreation 을 제공못하고 충분한 favorite food 를 제공 못하나 잠시나마 소아의 simplicity로 돌아가 소아를 받아드리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마음씨와 자연스러운 태도로 솔직함을 불러넣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읍니다.

하여튼 이곳 소아들은 우리나라의 소아들보다 행복하다고 느꼈읍니다.

그럼 또 소식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1966년 4월. 은예순 올림

독일편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곳 독일에 도착하여 무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떠나올때 너무나 시간이 없고 하여 뵘을 못하고 떠나와 죄송한 말씀 올릴바 없아옵니다. 널리 용서 하시옵소서. 저들은 27일 출발, 이곳에 29일 11시(한국시간) 여기는 29일 새벽 3시였습니다.

처음 방콕에 내렸습니다. 너무나 더웁고 이색적이라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깐 쉬 후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도착된 곳이 파키스탄의 카라치란 도시였습니다. 역시 이곳도 기후는 더웁고 그림에 서만 보았던 야자수나무가 우거져 있고 거리엔 빨간나무와 가지각색의 꽃들이 다루어 되어 있는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 일행은 환성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자나 남자나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다니며 너무 더워적인 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일행을 보고 예쁘다고 코리아가 어테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원더풀하다고 하며 또 우리가 고무신을 신고 내렸더니 구경거리가 더 된 듯 합니다. 시가 구경을 나갔는데 집들은 온통 꽃과 나무에 쌓여 집의 일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사막을 날

기 시작했는데 가도가도 나무하나 없는 허허벌판 모래위를 다섯시간이나 지나가서야 겨우 나무와 낙타를 볼 수 있어 놀랐습니다.

다음은 다마스코, 집들이 조각조각 여자들이 펙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가는 사치하지 않고 말쑥한 것이 눈에 들었습니다. 겨울이나 그리 춥지는 않더군요.

다음은 스위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두 교양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거리마다 햇시계가 걸려있고 스키이 관광객이 많아 비행장이 혼잡하나 질서있는 태도에 우리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숨지었습니다.

다음 새벽 3시 켈른도착, 많은 광부와 유학생이 마중나왔습니다.

처음보는 남자들이건만 반갑고 친밀감이 느껴진 것은 아마도 타고난 한뼉줄 단군의 자존이라는 숙명감 때문이었을까요.

반가움을 나눌새도 없이 우리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공세를 받으면서 같이온 일행들과 섭섭하게도 세곳으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탄 차는 하겐병원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역시 이곳도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으나 잔디가 푸르고 꽃을 볼 수 있어 한국의 가을 같았습니다. 저희 12명은 새로 지은 기숙사에 투숙, 한 방에 2명씩 기숙하면서 외국에서의 첫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수를 느낄새도 없이 근무는 14일부터 시작하여 2일간 12시간씩 근무하고

1 일은 off duty입니다. 이 병원은 국립정신병원 분원인데 환자수는 2,000명 간호원수는 120명, 침대수는 2,300bed나 됩니다. 병원은 4층 건물인데 몇군대로 나누어져 있고 신축중인것도 있었읍니다. 2명씩 각 병동에 배치, 별로 일은 힘들지 않으나 언어때문에 피로를 더 느꼈읍니다. 주로 우리가 할수있는 범위는 투약, 식사 check, 환자들과 산보를 하는 일이나 또 별로 배울것도 없는 것 같았읍니다.

이곳만 비교하면 우리 한국간호사 업무준이 몇배 앞선 것 같았읍니다. 다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빛을 받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가지로 마음 아팠읍니다.

수술방에선 조금 배울게 있었으나 소독관념이 없어 소독된 것을 손으로 만져 우리가 놀랐드니 병원장이 한국이 훨씬소독 관념이 높다고 한바탕 웃더군요.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네들의 기술이 아니라 친절, 부지런함, 진정한 간호정신을

가지고 밤을 새고 일하는 초인간적인 인내.....역시 우뚝 가난하던서도 게을렀고 사치했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다고 서로 부끄러워 했읍니다. 남녀가 모두 검소하고 거리엔 미장원이 볼수없겠끔 드물고 특수한 여자를 제외하고 여자들이 별로 화장을 안하는 것 같았읍니다.

이곳에서 제일 화려한이들이 한국 간호원들이라하여 진정 속으로 부끄러웠읍니다.

우리가 관광객으로 독일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검소함과 부지런함을 꼭 배워 가겠읍니다.

다만 멀리서나마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이제까지 게을렀던 것을 보답하겠읍니다.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가서 내 동포와 조국을 위해 힘껏 일 하겠읍니다.

그럼 건강하옵기 빌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1966. 2. 16. 문순올림

(p. 85에서)		
TEXAS	—	—
UTAH	—	—
VERMONT	—	—
VIRGIN ISLANDS	18	Yes
VIRGINIA	20	—
WASHINGTON	—	—
WEST VIRGINIA	—	Yes
WISCONSIN	—	Yes
WYOMING	—	—

Yes : 시민권 소유자에 한 함.
※ 연령은 만으로 함.